고분화성 갑상선암종의 재발 인자

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이민영* · 이상준 · 정필상

목 적: 고분화성 갑상선암종은 좋은 예후를 보이지만 재 발할 경우 환자의 유병율 및 사망률을 높인다. 본 연구에서 는 고분화성 갑상선 암종의 재발과 관련된 인자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하였다.

방 법: 1999년 1월부터 2008년 1월까지 본원에서 갑상선 절제술 시행 후 조직 검사상 고분화성 갑상선 암종으로 진단 받은 366명을 대상으로 하여 연령 및 성별, 암종의 크기, 갑상샘글로불린 항원 및 항체 수치, 임파선 전이 유무, 피막 외 전이 유무, 다발성 유무, 성대 마비 유무, 수술방법에

따른 재발 빈도를 비교하여 보았다.

결 과: 366명중 31명에서 재발하여 재발률은 8.5%였다. 피막외 전이 및 중심부, 측경부 임파선 전이가 있으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재발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고, 다병변 그리고 고 TNM병기의 암종의 경우 재발의 경향성이 높아졌다.

결 론: 피막외 침범과 임파선 전이의 경우 재발의 잠재 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.